

동요 병아리

『 뽀, 뽀, 뽀
엄마 젓줍주』
병아리 소리.

× ×

『깹, 깹, 깹
오냐, 좀기다려』
엄마닭 소리.

× ×

좀있다가
병아리들은
젓 먹으려는지
엄마품으로 다들어갔지요.

『카톨릭 少年』 (1936.11)에서

병아리

『뽀, 뽀, 뽀
엄마 젓 좀 주』
이것은 병아리 소리.

× ×

『깹, 깹, 깹
오냐, 좀 기다려』
이것은 엄마닭 소리.

× ×

좀 있다가
병아리들은
젓 먹으려는지
엄마 품으로 다 들어갔지요.

1936. 11.